

# 광주시교육청, 일본 무역 규제 관련 계기교육 실시

공개특강 · 계기교육 자료 개발 · 공개강좌 등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일본의 무역규제로 인한 한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역사적 사실 인식을 토대로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모색하고자 다각도로 계기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9월 4일 오후 3시에 광주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초·중·고등학교 역사 및 계기교육 담당교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개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사는 건국대학교 최재근 교수이며, 특강 주제는 '일본 경제침략

의 성격과 전망'이다. 이번 특강을 통해 현장 교사들은 한일 갈등의 원인과 대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계기교육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시교육청은 또한 '경제동원, 일일청구권 협정 및 대법원 판결, 일본 무역규제의 의도 및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개발된 계기교육 자료를 배부할 예정이며, 현장 교사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과정안과 발표(PPT)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직속기관인 광주교육

연수원에서는 시민자유대학과 연계해 'KNOW JAPAN' 주말 정규강좌를 개설해 운영한다.

9월 21일 오전10시부터 제1강좌를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10강좌를 진행한다. 광주·전남 시민과 초·중·고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문외는 시민자유대학(062-961-1110)으로 하면 된다.

장한국 교육감은 "광주 시민과 학생들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자력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며 계기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인호 기자

## 보성노동초, 생존수영교육 실시



보성노동초등학교는 20일부터 27일까지 3~6학년 22명을 대상으로 보성국민생활체육센터 내 수영장장에서 생존수영 및 영법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매년 꾸준한 수영교육을 통하여 물에 대한 적응력과 두려움을 없애고 도전의식

을 향상시키며 비상시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 능력을 강화시키는 경험을 했다.

이번 교육은 학년 초 교사 간 협의를 통해 매년 수영교육을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어떤 점에 중점을 둘 것인지 활발한 논

의를 통해 1년단위의 분절적인 수영교육이 아닌 6년 동안의 교육계획을 통해 수영교육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생존수영 전문 강사들과 사전 협의 및 역할분담을 철저히 준비하였다. 집합교육을 통해 영법수영과 생존수영의 기초를 배우고 동시에 2018년 생존수영 교육과 내용을 연계하고, 수준별 교육을 위해 전문 강사와 담임교사의 협업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후 수상 일반상식, 물 속에서의 호흡 방법, 킥만을 잡고 수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교육내용을 학년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수상 안전교육 및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위기상황에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기초체력 향상 및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순천대, 학사구조개편 추진위한 포럼

순천대학교는 29일 70주년 기념관 우석홀에서 '2021학년도 학사구조개편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대학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에는 외부 전문가와 내부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포럼 1부에서는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가 전라남도에서 바라는 대학의 역할 '을 주제로 기초발제를 진행하고, 이어 순천대 사회교육과 이윤호 교수의

'순천대, 개혁없는 생존없다'를 주제로 기초발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순천대 농업교육과 이도진 교수(좌장)와 신림지원전공 조계중 교수, 사회복지학부 김소라 교수, 영상디자인학과 김지영 교수, 전자공학전공 조병록 교수, 화학교육과 최원호 교수가 함께 하는 학사구조개편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고영진 총장은 "전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이번 학사구조개편은 우리 대학이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효과적이며 지혜롭게 대처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는 기대를 보였다.

한편, 순천대는 이번 포럼에 앞서 지난 7월말부터 순천대에 적합한 학사구조개편 모형 개발과 방향 설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총 4회에 걸쳐 연 120여 명의 교수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한 바 있다.

순천대는 이번 포럼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제시된 대교체제의 학사조직 개편과 학사운영 효율화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하여 9월 중으로 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이후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조정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10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 전남교육청, 경술국치일 청사에 조기 계양해

전남도교육청이 29일 경술국치일을 맞아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로 청사에 조기를 계양했다.

경술국치일은 1910년 일본의 강압 아래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간 치욕스러운 날이다. 8월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되고, 29일 공포됐다. 한국은 이후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아픈 역사를 제대로 기억함으로써 미래의 올바른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날 하루 동안 조기를 계양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홈페이지 배너와 교직원 업무포털 팝업창에 경술국치일 기억하기 관련 이미지를 제작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문구와 함께 게시했다.

전남교육청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올해를 '역사에서 배워 통일코리아의 희망을 피우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역사현장 국외체험학습 결과 보고회

순천교육지원청

순천교육지원청은 28일 신대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참가 학생, 학부모 및 순천시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역사현장 국외체험학습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중국 역사탐방은 순천지역 꿈나무들의 역사인식 고취와 의식 함양을 위해 순천시로부터 교육경비 1억 6천만원을 지원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순천지역 초·중학교 사회적 배려 및 모범학생 100여명을 선발하여 중국 상해부터 항주까지 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 진행하였다. 2018

년에는 백두산과 고구려 역사유적을 탐방하였으나,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위원회에서 목적지를 중국 상해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주요 탐방지를 일제의 탄압으로 이동하게 된 상해 임시정부 청사 및 항주 임시정부청사와 가족 거주지, 가흥 김구선생 피난처, 윤봉길 의사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홍공원까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 구성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였다.

보고회에서는 체험학습 활동 영상 및 독립선언문 영상 시청, 독립선언문 주요 내용 낭독, 만세 삼창, 나라사랑을 위한 실전 다짐 등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 전남도교육청, 예산편성 주민참여 열기 '후끈'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연수 실시

전남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교육청은 28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새로 선출된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50명을 대상으로 전남교육청 예산편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이해를

주제로 한 심화연수와 함께 전년도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본청 각·실과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거쳐 새로 선출된 위원들이 전남교육청의 역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날 연수와 함께 개최한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및 제3차 회의 운영 계획 협의를 하는 등 전남교육청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평훈 행정국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하는 협치가 중요하다"면서, "임기 2년 동안 전남교육발전을 위해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지난 7월 30일 출범한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전남교육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